

러시아에서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19-20)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록하기엔 역부족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 선교사로 도저히 살수 없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시간 주님께 서 저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가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빼제르에서 러시아선교사로 준비된 시기 (1991년 12월 15일부터1994년 9월 10일)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안정된 공무원 직장을 사표내고, 형들에게 맥살을 잡히며 형제간의 의를 끊고, 1991년 8월15일 러시아 제 1회 여름수양회 전에 빼제르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저는 사도행전 1장8절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추운 12월 러시아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베리아의 추위와 기후에 대해 아무런 상식과 준비가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과 긴부츠와 털모자를 쓴 사람들이 낮설었습니다. 도착하고부터 6개월간 알수 없는 두통때문에 진통제로 살았습니다. 저의 선교생활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찌 이곳에서 살아야 할지 하늘이 노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겨울에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시장에서 사온 홍시를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한달만에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일주일만에 도둑이 들었는데 청소년집주인이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고 식료품, 생필품이 귀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담배피우는 외국인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어학공부하러 나갈때마다 두아이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해로운것인 줄 알면서도 러시아 사탕으로 달래야만 했습니다. 한시간에 1달러를 주고 주 5회 교수님과 일대일 어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어서 알파벳부터 시작한 러시아어 공부는 문법과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5시간 숙제를 해야 하는데 다 못해가서 교수님께 교실에서만 공부한다고 책망을 들을때도 있었습니다. 불펜을 혀에 맡아서 혀 끝을 뒤로 꼬아 내는 발음을 훈련 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말이면 방 한칸에 네식구가 자고 다른 방은 세르게이와 안드레이 형제들이 와서 일대일 성경공부와 예배를 위해 자고 식사했습니다. 빼제르에서의 3년은 제가 선교지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겪게 했습니다. 영육간에 철저히 자립적인 삶을 훈련해주셨습니다. 개인 기도와 매일 양식쓰기, 자립적인 성경 공부, 매주 한편 소감쓰기는 제 선교생활을 지탱해준 원동력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개척을 나가도록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이나 위에 목사님들께서 그곳에 남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몸은 선교사로 왔지만 저는 도저히 발붙힐 만큼의 여유도 주지 않는 낯선 선교지에서 적응도 안된 상황에서 병어리요 귀머거리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공부 준비하는 중에 마28:19-20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세계선교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도록 나의 선교사의 삶의 방향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선교사로 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대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의 여러 문제에 개의치 않고 이 한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눌한 러시아어로 전한 말씀의 씨가 자라 이라 와그딸 나스짜, 류드밀라 파블로브나 (어학교수), 류바 (냐냐) 와 그딸이 지금까지 빼제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았을때 감사할뿐입니다. 결국 저희는 다른 선교지로 개척나가지 못하고, 닥터 사무엘리 선교사님의 방향에 순종하여 모스크바에 남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모스크바에 정착한 선교생활 (1994년 9월 10-2005 12월 31)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3주정도 해산하러 갔다가 위암으로 입원중이시던 김마리아 선교사님 병원음식을 매일 두번씩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MBC 창사30주년 특집 까레스키 촬영 통역을 10월한달동안하여 녀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후에 생활비가 바닥나서 저녁식사준비 대신 부엌에 앉아서 메뉴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식재료를 사오시는 분이 있어 놀랐습니다. 이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95년 2월 말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중이라서 제가 자립해야만했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폴로 일하며 올라 밀리넬까야 자매님과 일대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때였습니다. 방한칸을 그녀에게 내주고 네식구가 거실바닥에서 잤습니다. 아침마다 8시에 두아이들 아침식사와 도시락까지 싸서 차태워 유치원, 학교에 보내고 자신이 출근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라가 아침에 일어나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침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울때에 나 살기 바빠서 그딸에게 섬세하게 관심갖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96년 11월 7일 알렉세이 벨르흐 목자와 올라 목자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혼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의 네식구 한달 식비로 그녀의 정장옷을 선물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피스책 동역자로 딸 올라를 시집보내고 허전함으로 한 자매님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7년 1월 정확히 나타샤 자이쑈바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하나님께서 딸로 영접케 하셨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갈급해서 매주 일대일을 두번씩 했습니다. 소감도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써왔습니다. 우린 일대일 말씀공부시간이 영육간에 배부르고 행복했습니다. 2년째 되어 믿음으로 티모데 하 목자와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4년동안 자립하며 저녁마다 기숙사 심방과 말씀공부등으로 개인기도생활을 깊이 하지 못함이 늘 육적 시간적 한계였습니다.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자립을 시작하면서 쉬지말고 기도하라 한말씀을 년요절로 잡고 매일 순종함으로 새벽기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때 그때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행복의 비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선교사님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사랑함으로 용서하고기도하니 서운함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나타샤 목자와 10년동안 함께 매주 사범교육대 심방하며 합심동역하여 양들을 섬기게 도우셨습니다. 어느순간 매주 7-8년 캠퍼스 심방을 했지만 제자로 남는 양이 없자 지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엠빠게우에 마들렌 민 선교사님을 3년간 국비 유학생으로 보내셔서 스베따 스비스툰 자매님을, 그녀를 통해 새봄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피성을 꾸준히 했지만, 빈손이었고 양들이 양을 데리고 오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샤 역사학과 리자, 이라, 마리나 초등학교. 이꾸꼬,마리아 잉잉 사샤 쓰웨이) 저는 양들을 영육간에 먹이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아들 아브라

함이 고등학교때 축구부였는데 게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게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합심 동역할 리더들도 있고 해서 제자양성에 집중할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의 2년 가까이 한국에서 전폭적인 기도지원과 섬김속에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 (2006년 1월-2007년 9월)

저는 2006년 1월 말 깔로멘스키 메디센트르에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유방암이다. 일주일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홀로 듣기엔 매우 충격적인데,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일주일 이내에 수술하면 산다는 말로 해석해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수술하고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 허셉틴 재발방지 치료를 마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5년동안 3개월에 한번씩 수없이 한국을 오고갔습니다. 안암센타에서 질병의 강도 만난 자 같은 자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때에 평생 고마운 생명과 같은 많은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레베카, 김조세피나, 안수진, 양재규, 영숙, 김미금). 수많은 전세계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지원과 심방을 받았습니다. 사명과 가정을 떠나 홀로 투병생활을 해야하는 세계 병원에 있을때 같은날 각각 다른 시간에 세분의 주의 종을 보내사 시편 50:15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에이리 편지, 전박사님, 사무엘 H 리)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투병기간 매번 이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모든 어둔 생각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매일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중보기도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레이스 에이 리 선교사님은 자주 메일과 헌금과 심방과 꽃으로 저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항암약 부작용으로 신경계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깊은 밤에 홀로 기도할때 주님께서 저와 대화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에 대한 빛진자의 심정으로 부담감이 컸던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준 밥한끼 몇푼의 금 고맙지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저의 대답은 “네”였고 빨리 이 빛을 갠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 내아들을 주었다. 그런데 왜 그리 감사가 적은지 모르겠구나.”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없어 누워서 기도하는 제게 저처럼 아주 작은소리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서 한국에서부터 캠퍼스 개척목자요 러시아선교사로 고생했고 죽을 병이 든지도 모를정도로 양들을 먹이느라 수고했는지 조잘했습니다. 얼마의 시간동안 저는 자기의를 내세우며 떠들었습니다. 더이상 할말이 없어 멈출때까지 하나님은 저의 푸념의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조용한 밤에 다시 한번 왜 그리 감사가 적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속의 사랑에 감사가 적었던 죄를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늘 눈물흘렸습니다. 선교사명에 치우쳐서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식고 자기의만 쌓고 있던 죄인을 한국으로 부르셔서 영적으로 회복토록 안식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선교열매도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투병중에도 저는 선교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대일과 양식훈련으로 어려운 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결혼문제로 힘든 분들, 15년동안 일대일 양을 한번도 섬겨본적 없는 분, 사명을 떠나 있던 분을 심방가 섬기며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말 사명의 땅 모스크바에 돌아올때 부활의 산증인으로 보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와서 예상과 달리 아팠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3년동안 흘렸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사랑하는 딸 나타샤를 알아 볼수 없어 통곡했습니다. 제 내면의 큰 슬픔

과 아픔을 주님은 이사야 1장 양식말씀으로 위로해주셨습니다. (사 1:2-6)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저보다 더 큰 슬픔으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가 굉음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에 무관심한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후 기도할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두번 당신의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구체적으로 러시아 목자들과 성경공부를 하라하셨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순종할때 하나님께서 그룹별로 점차 매주 절대적인 말씀공부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소감모임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순종할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할때 제 내면에 부딪히는 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과 판단의 죄였습니다. 빌2:3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요절로 잡고 한해 내내 저는 저의은밀한 생각의 죄로부터, 말로 범하는 죄로부터 구원,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대화중에 이 말씀이 늘 저를 죄로부터보호해주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이지만 몇가지 반복된 사건으로 러시아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미움으로 사랑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름수양회때 십자가에 못박혀 원수같은 죄인들을 위해 용서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기도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앞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러시아선교사로서 자격도 없는 저의 내면의 악한 죄를 회개케하셨습니다. 다시 러시아 양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웃을 네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 최근 3년동안 마음에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저는 코로나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할수 없지만 자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희생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 나야 포미느흐 자매와 성경공부를 하는 것, 선교사님들과 목자들의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한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생각과 감정 기준을 내려놓고 마음의 귀를 엽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선교30년에 나의 러시아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며 저는 러시아선교사로 살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자였음을 알았습니다. (추운기후,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러시아 주식 감자 빵 음식, 러시아멘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세계선교명령에 순종하여 살도록 부르시고 이곳 선교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자녀들을 믿음안에서 키워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십년동안 매달 방값과 매년러시아체류 비자비, 회사 경영, 자녀교육비, 십일조를 드리고 자비량 선교사로 살도록 자립하며 러시아 양들을 먹이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모스크바에 오시는 수많은 손님들을 저희 집에서 자비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저를 가장 부요한 자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선교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자를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의 삶에 저와 함께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제가 이땅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구속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